

Hear the footsteps and laughter from days gone past.
People in days gone past made the most of life, enveloped by the breeze.

从远古传来的脚步声和笑声。

沐浴在和风之中，那时也有往来的人们在讴歌生活。

들려오는 먼 옛날의 발자국 소리와 웃음 소리.

산들바람에 감싸여, 그때도 오가던 사람들은 삶을 구가하고 있었다.



国指定重要文化財 餘慶寺 薬師如来坐像(餘慶寺 提供)

福岡は備前刀の名を高めた「福岡文字派」の作刀地でもあり、山陽道の沿道で、吉井川の水運も良く、中国地方有数の商業地として繁栄していました。なお九州の福岡は、豊臣秀吉の参謀・黒田官兵衛の子・長政が、黒田氏ゆかりの地・備前福岡にちなんで名付けたといわれています。

本蓮寺は南北朝期創立の法華宗の名刹。本堂、中門、番神堂の3棟の建造物が国指定重要文化財になっています。



国指定重要文化財 本蓮寺 本堂

清淨なる空間 国指定重要文化財を持つ古の寺院



歴史人物ミニコラム
宇喜多直家

宇喜多直家は砥石城(邑久町豊原)に生まれた。当時宇喜多家は一豪族にすぎなかつたが戦争の中で武功を重ね、やがて備前国を統一して戦国大名にまで成長。岡山城周辺に備前福岡・西大寺の商工業者を集めて城下町の建設を進め、現在の岡山発展の基礎を築いた。

瀬戸内の今昔

イーペンス님 그림에는 '후쿠오카 시장'에서 징물, 쌀, 생선, 비젠 도자기 등을 파는 상인과 무사, 시장에 무리 지어 모인 남녀 등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어 당시의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케이지 절은 나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첨태종 고찰.

고보지 절은 나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언종 고야파 사원. 가마쿠라시대 가이케이의 작품, 도주인 사원의 본존인 아미타여래입상, 헤이안시대 후기 작품, 헌묘인 사원의 본존인 오지여래좌상은 모두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혼렌지 절은 남북조시대에 창건된 법화종의 명찰. 본당, 중문, 반진도 등 3개의 건조물이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中世山陽道隨一の商業地
一遍上人絵伝に描かれたにぎわい
『福岡の市』

一遍上人絵伝には「福岡の市」で織物、米、魚、備前焼などを売る商人、武士、市に群がる男女など多くの人が描かれ、当時にぎわい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福岡は備前刀の名を高めた「福岡文字派」の作刀地でもあり、山陽道の沿道で、吉井川の水運も良く、中国地方有数の商業地として繁栄していました。なお九州の福岡は、豊臣秀吉の参謀・黒田官兵衛の子・長政が、黒田氏ゆかりの地・備前福岡にちなんで名付けたといわれています。



- A 福岡城跡
- B 妙興寺・七つ井戸
- C 餘慶寺
- D 砥石城跡
- E 弘法寺
- F 本蓮寺